



#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지울 스님의 '뜻'

천성산 생태보호 위한 생명을 건 단식  
“나는 다만 깊고 어두운 천성의 강에  
던져지는 자맥질일 뿐...”

글\_ 최낙영(삼인출판사 주간)  
사진\_ 코리아포커스 김홍구 기자

지울 스님은 지난 12월 자전적 에세이 《초록의 공명》(삼인)을 출간한 직후 천성산 공동생태조사에서 보인 당국의 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다시 단식에 돌입했다. 책을 펴내기 전부터 지울 스님과 가깝게 지내온 최낙영 삼인출판사 주간은 최근 동국대 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다시 그를 만난후 느낀 소회를 〈출판저널〉에 보내왔다. <편집자 주>

침상의 썩한 얼굴, 그러나 눈물이 날 만큼 맑은 눈빛  
“서울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니,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네요.”

반갑다는 뜻일까. 인연이라는 게 그렇다는 뜻일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섰을 때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지울 스님이었다. 이곳으로 온 것도, 다시 나를 만난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뜻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냥 누워 계시라고 해도 그는 한사코 몸을 일으켜 달라고 했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 여동생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여동생의 손을 빌려 자세를 고쳐 앉자 그는 슬며시 웃었다. 지난해 헤어질 때 보았던 그 쭉스런 웃음이었다.

여동생의 말로는 낮 동안엔 정신이 맑았다가 저녁이 되면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병원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삭정이처럼 말라붙은 몸. 얼굴 골격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의 썩하디 썩한 얼굴. 그런데 그 눈빛은 눈물이 날 만큼 맑았다. 지울 스님은 마치 무슨 일이 있냐는 듯 웃으며 입을 뻗었다. 언뜻 들으면 명랑해 보이기까지 한 말투였다.

“병원안 왔으면 무슨 말이라도 하셔야지요?”

무언가 말을 해야 할 텐데... 머릿속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또 다시 눈이 시리고 가슴이 먹먹해 왔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정성’과 ‘진실함’이 너무나 ‘불편’했던 《초록의 공명》 원고  
《초록의 공명》을 출간하기로 하고 지울 스님으로부터 원고를 건네 받은 것은 지난해 9월초 부산에서였다. 책이 출간된 것이 지난해 11월말, 그리고 전화 통화 한번 못하고 4개월 만인 올해 1월 중순, 일산의 병원에서 지울 스님을 다시 만났다. 내 출판 경험만으로는 책을 내기로 한 필자가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책이 출간될 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라든가 천재지변이 없다면 당연히 겪지 못할 일이 될 것이었다.

당시 원고를 맡기면서 지울 스님은 “앞으로 만나기 어려울 것이므로 책의 진행을 여동생에게 맡긴다”는 말을 했고, 내가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진행 상황과 일부 언론사의 곡해로 인한 중단 측의 오해 등을 담담한 어조로 간단히 말해 주었을 뿐이었다. 그동안의 단식으로 인해 상한 몸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 보였으므로, 나는 큰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간의 일들에 관한 원

고를 털었으니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요양이라도 하시려는가' 정도로 생각했다.

서울로 올라와 목차까지 꼼꼼히 정리된 지울 스님의 원고를 읽어보면서 나는 적잖이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편하게 그 원고들을 읽을 수 없었다. 한편 한편의 글들은 내 마음을 두들겼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임에도 무언가가 자꾸 나를 불편하게 했다. 때로는 그 원고들이 내 추한 어떤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보기 싫은 거울 같기도 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진실함' 혹은 '진정성'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여러 날에 걸쳐 원고를 다 읽은 후였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원고를, 책으로 묶어내는 단순한 원재료쯤으로만 생각해 왔구나' 하는 반성이 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는 불안했다.

깊고 어두운 강가에서

이제 다시 어두운 강가에 서서  
밀항하듯 탈영하듯 떠나야만 하는 시간이다.  
수없이 건너왔던 강을 또 혼자 건너야 한다.

수심을 알 수 없는 저 어두운 강에 몸을 던져야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가.  
이제 저 강은 나를 건네줄 수도 있고  
내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다.

이 슬픔과 두려움에 아랑곳없이  
나는 다만 깊고 어두운 천성의 강에  
던져지는 자백질일 뿐이다.

-《초록의 공명》중에서

그 불안은 책이 출간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다. 차마 볼 수 없는 지울 스님의 사진이 인터넷 매체에 실렸다. 지난 9월 이후, 그러니까 내가 원고를 건네받은 후부터 기사가 났던 12월 어느 날 당시까지 80일 동안 경기도 어느 사찰에서 단식 중이라는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이는 수수깡 같은 지울 스님의 사진이 점점 흐려지면서 그가 직접 찍었다는 천성산의 사진들이 오버랩됐다. 사진을 한 장씩 넘겨가며 "정말 이쁘죠? 정말 이쁘죠?" 라던 목소리가 귓속에 쟁쟁 울리는 듯했다.

모니터 속의 저 스님이, 천성산 문제가 없었다면 산에서 나올 일도, 그래서 컴퓨터나 사진 촬영을 배울 일이 없었을 거라며 웃던 그 스님이라니. 100일 단식을 풀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겠다"고 했던 그가 다시 단식이라니.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정말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것일까. 솔직히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혼수상태 거듭, "그래도 난 여기까지 기쁘게 왔어요"

"아, 그리고 음료수 사왔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병원에 오면서 음료수도

안사와..."

병문안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보기에 어색했던지 지울 스님이 정말 남의 이야기하듯 한마디 했을 때 비로소 나는 당당하게(?) 입을 뿔 수 있었다.

"무슨 소리를! 사왔지요. 스님이야 아무것도 안 드셔도 되지만, 동생분은 드셔야 아니까..."

지울 스님은 또 슬며시 웃었다. 역시 무언가 쑥스러운 것처럼. 그리고 생각난 듯이 말했다.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했다.

"아참! 그리고 보니 우리 출판기념회도 못 했네... 왜 출판기념회를 안 해주는 거지? 출판기념회 해야지..."

"해이지요. 날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색하게 웃었다. 《초록의 공명》의 출판기념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찌 스님과 출판사뿐일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생각한 여동생이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시선을 먼 데 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기쁘게 왔어요... 기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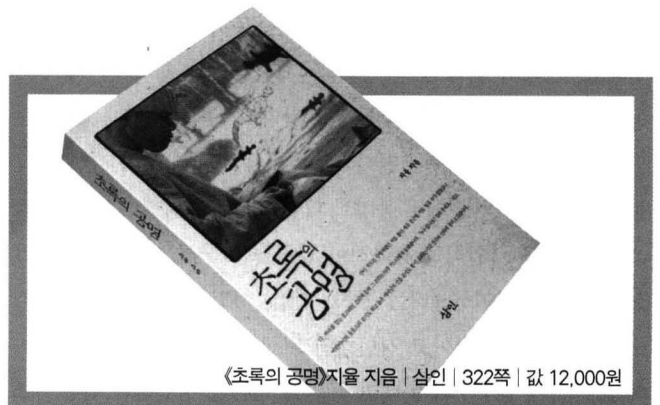
혼잣말인지,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인지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만일 제게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저는 이 꽃밭에 앉아 지는 꽃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눈여겨 봐주지 못했지만 나비와 벌, 개미와 무당벌레, 때로는 진드기를 불러 세상의 창조에 참여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꽃씨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채송화 꽃씨를 받아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꽃씨를 심을 한 조각 땅을 생각하며...

-《초록의 공명》중에서

지울 스님에게 천성산은 무얼까.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천성산은 무얼까. 어느 환경단체에서 "지울 스님의 단식을 보지 말고 스님의 뜻을 보라"던 말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초록의 공명》과 지울 스님에 관한 소식을 써달라는 이 원고의 마감에 맞추지 못해 찢찢매고 있을 때 지울 스님이 혼수상태라는 소식을 접했다. **출판**



《초록의 공명》지울 지음 | 삼인 | 322쪽 | 값 12,000원